

## 생산지별 면화의 특징

중국면의 대부분은 중섬유면(섬유장 2.5~3cm)과 장섬유면이다. 본래, 중섬유면과 장섬유면은 고급면으로써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토가 넓고 생산환경이 다른 등의 문제로부터 품질에 편차가 많은 것이 결점이다. 그 때문에 태번수용 원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면이 생겨난 고행의 인도면은 품종개량에 의하여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하였다. 섬유가 길어지고 수확량도 크게 증산하였다. 인도의 초장섬유면은 색이 하얗고 우수한 촉감이다. 그 때문에 고급 니트제품에 아주 적당하다. 단 중국면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역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큰 것이 문제이다.

면화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업랜드면이라고 불리는 품종이 압도적인 양으로 생산되어 미국면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확한 업랜드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면은 섬유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고급 니트용으로써 적합하다. 이외에 섬유가 긴 것으로는 이집트면에 유사한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 스피마면도 생산되고 있다.

파키스탄면은 옛날부터 태번수용 단섬유면의 산지로써 중요한 존재였다. 그 특징은 굵기와 강도이다. 요즈음은 중·장섬유면도 생산되고 있다.

구 소련면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등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장섬유면이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지만 인공 관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특히 안정하고 있다.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합성섬유와의 혼방용에 적합하다. 다만 색택이 나쁘다는 점과 이물의 혼입이 있기도 하는 점이 난점이다.

오스트랄리아면도 중·장섬유면인데 섬유의 강도가 약간 나쁘다. 섬유에

점착성이 있기 때문에 방적공정에서 트러블이 많은 것이 결점이다. 이외에 아프리카, 터키, 페루 등에서도 면은 생산되고 있다.